공무원만 땀흘리는 AI 방제 현장

군·경·인부들 기피 인력난…확산땐 약품 부족 우려까지

"20만원을 준다 해도 닭·오리 살처분 현장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대와 경찰에서도 못하겠다고 하니 공무원들이 할 수 밖에 없지요."

13일 고병원성(혈청형 H5N1)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영암군 신북면 모 농장 인근인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 20여명이 방제복을 입은 채 살처분에 분주했다. 3일 째 살처분에 나서 파김치가 된 나주시 공무원은 "다른 일은 전혀 못하고 이 일에만 몰두해 있다. 인력도 없는데 AI가 더 확산이라도 되면 큰일이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나주시 축산과 직원도 "정부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 방제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살처분 현장에 있던 영암군 관계자는 "살처분 현장에 투입될 때는 예방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지만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인부들이 꺼려 해 공무원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영암군청 공무원 700여명이 총동원됨에 따라 며칠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난 8일 영암군 신북면 모 농장에서 발생한 닭의 폐사원인이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자 주말과 휴일 동안 위험지역인 반경 3㎞ 이내 닭과 오리 46만6천마리와 계란 56만5천개를 살처분, 매몰했다.

하지만 살처분 대상이 늘어날수록 방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전남도는 전북 정읍시에서 AI가 발생한 지난 4일부터 인접 지역 시·군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방역초소 현장 근무 등을 맡겼으나 수십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게 되면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부들을 고용하고 싶어도 살처분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공무원들은 업무를 제쳐두고 방제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또 그동안 자연재해 시 복구현장에 큰 도움을 줬던 군인·경찰들도 감염을 우려해 방역 초소 근무 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살처분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

살처분 대상 지역이 위험지역(3㎞)에서 경계지역(10㎞)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인력뿐 아니라 방제약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영암군의 경우 경계지역 확대시 살처분 대상이 65농가, 175만마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문제와 함께 방제약품 수급 문제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영암군은 "방제약품 500㎏을 보유하고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2t을 추가 주문했다"며 "다른 지역으로까지 AI가 확대될 경우 약품 수급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13일 오후 나주시 반남면 오리농장 인근에서 나주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AI 감염 위험에 포함된 오리 3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과거 AI와 어떻게 다른가

추운 겨울 발병 통념 깨지고 오리까지 집단 폐사 '기현상'

국내에서 AI가 발병한 것은 2003~2004년과 2006~2007년 겨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3년에는 전남을 포함, 전국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했고 2006년에는 경기, 충남, 전북 등 3개 시·도의 5개 시·군에서 7건이 확인됐다. 전남지역에서의 AI 발병은 지난 2003년 이후 두번째다.

역학조사 결과 2003년 AI는 겨울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뒤 텃새를 거쳐 양계농장에 전파됐고, 오염된 차량이나 동물 등을 통해 급격히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6년 AI는 감염된 철새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농장에 유입됐다는 점에서 비슷한 전파 경로를 보였으나 발생 농장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유입 및 전파 경로를 알 수 있지만 올 AI는 기존의 사례와 여러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과거에는 겨울인 11월과 12월에 각각 시작돼 3월 초·중순까지 이어졌지만 올 해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는 4월에 발병했다. AI 바이러스가 4도의 차가운 날씨에 가장 오래 생존하며, 이 때문에 추운 겨울에 주로 나타난다는 통념이 깨진 것이다.

또 과거에는 AI에 감염돼도 오리는 집단 폐사하지 않았지만 올 해는 닭뿐만 아니라 오리까지 모두 폐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기온이 높고 철새가 대부분 돌아간 이후라는 점에서 유입 경로가 완전히 다르거나 변이된 신종 바이러스가 풍토병화 했을 가능성 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AI 바이러스가 기존과 전혀 다른 변종 또는 신종일 경우 기온이 더 오르는 4월 말 이후까지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2003년 AI 발생 때 나주시 산포면 등 29개 농가의 22만9천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에 따른 직간접(유통 및 음식점 피해 추정) 피해는 45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AI발생에 따른 살처분은 현재 29개 농장에 총 62만 마리에 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자리에 모인 '5·18' '4·3' '여순사건'

恨과 눈물 서로 어루만지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인 '5·18 광주민중항쟁'과 '제주 4·3항쟁' '여순(여수·순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피해자 가족 65명은 12일 광주를 찾아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은 5·18 희생자 가족을 만났다. 이들의 광주 방문은 '5·18 민중항쟁' 피해자 가족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 어머니회'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옛 전남도청 일대 5·18 유적지를 둘러본 뒤 5·18 기념재단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현장을 둘러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5·18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아직도 미완성인 과거사 회복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여순사건 당시 학살 현장에 있었던 김천우(68) 유족회 회장은 "과거 60년간 연좌제에 묶여 굴절된 삶을 살아왔다"며 "5·18 민중항쟁은 여순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4·3항쟁' 희생자 유족회 김두연 회장은 "5·18 민중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원조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기에 4·3 항쟁도 특별법이 마련돼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오월어머니회' 이명자 사무국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보듬는 자리가 됐다"며 "일회성 모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모임을 통해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호남 잇는 김주열 열사 추모

민주성화 5·18때 광주 온다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1 마산민주항쟁' 48주년을 맞아 '제2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186 김주열 대장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발견된 마산 중앙부두에서 채화된 민주성화는 8박9일 동안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 지점~진주~산청~함양 등을 거쳐 186㎞ 떨어진 전북 남원 김주열 열사 묘소에 19일 도착할 예정이다. 민주성화는 다시 광주로 내달려 내달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거쳐 5·18 민중항쟁 기념식장으로 옮겨진다.

한편 김주열 열사는 지난 1944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마산상고(현 용마고)에 응시하기 위해 1960년 3월 경남 마산으로 왔다. 하지만 그는 3월 15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됐으며 27일 뒤인 4월11일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 숨진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열사의 비참한 죽음을 확인한 국민들은 다시 시위에 나섰고 결국 4·19 혁명을 이뤄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지렁이 단팥빵' 자작극 가능성 높아

국과수 감정결과 통보

'지렁이 단팥빵'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 결과 이번 사건은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지렁이와 단팥빵에 대한 외형과 성분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최근 '문제의 지렁이가 원래 단팥빵 속에 들어 있었던 게 아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지렁이의 외형과 지난달 24일 발견 당시 촬영한 지렁이 사진을 비교하고 열변성(가열에 의한 단백질 변성) 현상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팥빵 사건 제보자 송모(38)씨 등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신고 경위와 진술번복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송씨가 지난달 24일 S식품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하자 수사를 벌여왔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481〉 김종두

자살 유서 군인, 알고보니 PC방에

쌍나팔

○…부대 복귀를 앞둔 군인이 잠적하려고 투신자살한 것처럼 꾸며 군·경이 17시간 동안 바닷가를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

○…1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목포시 대반동 한 호텔 인근 해안도로 난간에서 강원도 철원 한 육군부대 최모(21) 일병의 군화 한 켤레와 편지 세 장 등이 놓여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해경은 최 일병이 남긴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편지를 보고 바다에 투신자살한 것으로 판단, 수색에 나섰으나 찾지 못하고 다음날 오후 목포의 한 PC방에서 최 일병을 발견했다고.

○…최 일병은 헌병대 조사에서 "지난 7일 청원휴가를 나왔는데, 군 생활이 하기 싫고 힘들어 잠적하려고 일을 꾸몄다"고 진술.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